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containing program titles and times for EBS channels.

■ 데뷔 50년 탤런트 강부자

“첫째 출산 20일만에 촬영장 복귀 국회의원 또 하래도 배우가 천직”



라디오 연속극에 꼭 빠져 지내던 소녀는 라디오를 뜰어 안을 들여다보며 “이 속에 수십 명이 들어앉아 있나 보다”라고 했다. 사촌 집에 놀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학교 마당에서 함께 보는 텔레비전을 처음 보곤 “영화가 나오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네!” 했다. 그제 ‘더빙’임을 알고는 성우가 되고 싶었다. 목소리만큼은 자신 있었다. 신문에 성우 대신 탤런트 모집 광고가 보이기에 지원했다. 심사위원들이 네 가지 예시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해 보라기에 욕에 갇힌 춘향이를 연기했다니 다른 것도 해보고 해서 남편 바가지 굵은 아내까지 네 가지를 모두 다 하고 1962년 KBS 2기 공채 탤런트가 됐다. 배우 강부자(71) 씨의 50년 연기 인생의 시작이었다. 출연한 드라마는 일일이 꼽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 월급 1만5천 원을 받고 한 달에 서른한 번 녹화할 때도, 하루에 두 편을 찍을 때도 있었다. 드라마 촬영 중 첫 아이의 예정일이 다가왔다. 일일연속극이라 빠질 수가 없으니 낳고 오라는 말에 병원에 가 출진제를 맞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결국 제왕절개를 해

달라고 했다. 배를 여니 물욕이 발견돼 제 거 수술도 하고 팽창까지 떼어냈다. 그리고 20여 일 만에 실밥을 풀고 촬영장에 나왔다. “남편(동기인 배우 이복원)하고 나하고 둘이 합쳐 월급 3만 원 가지고 5개월 계획을 세웠죠. 첫 번째가 전하기 놓는 거였어요. 영아를 낳고 20일 만에 촬영장에 나왔어. 그제 ‘더빙’임을 알고는 성우가 되고 싶었다. 목소리만큼은 자신 있었다. 신문에 성우 대신 탤런트 모집 광고가 보이기에 지원했다. 심사위원들이 네 가지 예시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해 보라기에 욕에 갇힌 춘향이를 연기했다니 다른 것도 해보고 해서 남편 바가지 굵은 아내까지 네 가지를 모두 다 하고 1962년 KBS 2기 공채 탤런트가 됐다. 배우 강부자(71) 씨의 50년 연기 인생의 시작이었다. 출연한 드라마는 일일이 꼽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 월급 1만5천 원을 받고 한 달에 서른한 번 녹화할 때도, 하루에 두 편을 찍을 때도 있었다. 드라마 촬영 중 첫 아이의 예정일이 다가왔다. 일일연속극이라 빠질 수가 없으니 낳고 오라는 말에 병원에 가 출진제를 맞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결국 제왕절개를 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4일(음 8월 9일 戊子)

- 36년생 비산한 처지에 있는 이와와 협조가 있다. 48년생 힘들어도 결과는 अच्छ다. 60년생 사소한 일이라면 대범하게 넘어가자. 72년생 뜨겁게 정열을 불태워야 한다. 84년생 상대가 의외로 적극적이다. 행운의 숫자 : 85, 24
42년생 길흉이 공존하고 있으니 원만한 운운이 절실. 54년생 진정성 있는 언행이야말로 만사형통의 지름길. 66년생 사전에 제반 여건을 신중히 살펴라. 78년생 전체적 흐름과 국면의 이해에 충실하자. 행운의 숫자 : 50, 63
43년생 언제 선점하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55년생 체면 때문에 무리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 67년생 자기 관리가 우선 되어야 타인 관리가 가능하다. 79년생 보편타당함이 실력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46, 67
44년생 과거의 좋은 형국을 이롭게 될 것이다. 56년생 비생 산작이라면 미련을 버려라. 68년생 관행에 집착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80년생 생애에 그치지 말고 실행해야 의미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2, 49
45년생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57년생 절제해야 할 대상은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 69년생 희망적인 생각이 움트는 형국이로다. 81년생 집착은 미래에 대한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9, 71
46년생 주저한다면 후회만 남으리라. 58년생 모든 것을 잊고 기분 전환을 해도 좋다. 70년생 알면서도 당할 수 있으니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82년생 단순한 판단은 오류를 이끄는 서두름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75
47년생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분실과 망각으로 인한 손실을 주의해야 한다. 71년생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방해꾼이 보인다. 83년생 처음에는 힘들지만 다고 밀고 나가면 성사되리라. 행운의 숫자 : 83, 0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xamples. Includes phrases like 'I have to get ready for a test tomorrow' and '絶纒之會(절영지회)'. Contains a table wi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ext and a small table with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text.